

임상수기

사랑의 강가에서

정락진

아픔은 왜 있는 것일까?

고통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까? 병원에 근무 하면서부터 이러한 질문을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물어보곤 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침묵으로 되돌아와 나의 마음에 못질을 해온다. 언제까지만 해도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서 자신있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도, 갑자기 침묵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착하게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에게도 냉혹하게 아무런 말도없이 찾아와 수 십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놓고만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선다.

우리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사랑 새 생명을 탄생 시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밝고 친절하며 어떠한 물음에도 기꺼이 응하여 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정열과 열정은 식어가고 목까지 가득차 있는 오만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때라곤 없는 그들에게 모질게 아픈 상처를 주는 일만 더욱 하는 것 같다. 가슴에 못질하고 창자를 토막내는 아스라하고 쓰라린 독한 말만 내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새삼 치료에 대한 어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그를 만난 것은 낙엽이 떨어지고 잡초 마르는 냄새가 풍기는 가을이었다. 지난 여름내내 햇볕 한 번 쬐지 못한 헬숙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제주도 여행 중에 갑자기 덩비는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왼쪽 무릎은 외측인대가 파열되었다.

영문과 4학년, 형설의 공이 우루루 무너지는 소리를 어떻게 용케도 참아 내었는지 입가에는 오히려 미소를 띄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같이 나눌려고 서울에서 단숨에 내려와 지켜준 여인의 모습에서 거리에서 활보하는 여인

에게서 느낄 수 없는 깊음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조그만한 손이 움직여서 커피를 끓이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 보는 그에게서, 이렇게 어울려 한지붕을 이루는 풍경이 께이나 인상적이었다. 딱딱하고 굳어지고 이상하게 변형된 그의 다리 옆에 서니, 막노동 공사판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이제부터 닦고 부수어서 본래의 모습대로 만들어야 할 우리들에게 가을의 석양이 유리창은 넘어 신의 축복처럼 드리워졌다. 4개월동안 표적의 대상이 되어온 Cast 제거 후 기뻐했고 곧 걸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약간 흥분했으리라.

“선생님, 크리스마스가 오면 걸을 수 있을까요?”

“흰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뛴수는 있을까요?”

“은 대지가 축복으로 물들여지고 개나리 벚꽃이 만발할 때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착한 연인들이여!”

어머니 태에서 평안히 영양을 공급받고 사선을 넘어서는 고통 중에서도 겨우 3kg 밖에 되지 않는 핏덩이였고 사랑도 받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튼튼해진 다리의 연수가 27년 되었소. 이제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성급하게 굴면 어찌하리요?

어찌면 지금 이 순간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낙심에서부터 시작해야 옳은 순서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만 앞질러가니 어찌하리요?

내가 흠모하는 하나님이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선가 광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풀려도 상관없고 신비의 광선이 무릎에 임하여도 상관없나이다. 순수한 저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소서! 하지만 당신은 눈물과 땀이 흘러서 강이 되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압니다. 인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신년도, 구정도, 그들은 병실에서 보냈다. 화사한 봄이 찾아오자 바위처럼 버티던 무릎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나는 반딧불처럼, 멀리 떨어질수록 빛나는 폭포처럼, 폭풍한설에만 피어나는 에텔 바이스처럼, 그들의 모습들은 더욱 어울려가고 고통을 인내로 참아온 그들의 웃음에서 수많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人生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 오월 어느날 그 연인들은 떠나갔다.

밖에서 또 앰블런스 소리가 들려온다. 자 긴장하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애타는 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청주 정문석 정형외과)

중앙회소식

■ 87년도 신입회원 연수교육

- 개 회
 - 국민의례
 - 윤리강독 : 임인혁
 - 회장인사 : 김용천
 - 협회연역보고 : 홍정선
 - 신입회원 선서(회원패 및 뺏지 증정)
 - 제 1 교시 : 물리치료사의 취업 및 전망 : 정진우
물리치료사의 윤리 : 김정숙
 - 제 2 교시 : 물리치료사 협회 정관 : 배승학
기획부 업무안내(87년 신설) : 민경옥
보수교육 : 오경환
의료보험 교육 : 백 진
- 장 소 : 서울대학병원 B강당
- 날 짜 : 1987. 6. 27. PM: 2:30
- 참가대상 : 서울, 경기지역
- 참가인원 : 149명



지부소식

■ 총부지부소식

- 임원회(6. 1일 P·M 7:30분 Silk Road)
- 의료보험 시범 지구인 보은군 의료보험 조합의 적자운영에 따라 물리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로 현 임원단과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음과 같은 안건이 논의 되었다.
 1. 지부에서 보은군 의료보험 조합으로 취소 요청 공문 발송할 것.
 2. 중앙회에 연락하여 보사부 보험과와 상의 조치할 것.
 3. 충청일보 병원 담당기자와 만나서 환자들의 반증을 여론으로 유도할 것.
 4. 의사회와 상의하여 보은군 P·T 환자 Boycott 할 것.
 위의 4개 안건 중 제 1항은 조합의 적자운영으로 86년도 6, 7월분 물리치료비가 미지급 상태이며, 87년 12월까지 종결키로 하였고 88년 부터는 인정하기로 통보받음.

◎ 취 업

- 박영애(3617) 증평서울외과 의원
- 함운숙(2398) 청주병원
- 정남진(3849) 청주신의과
- 이호영(3783) 진천제일외과

◎ 전 출

조일순 → 제주지부